

사람들의 마음 어루만진 <플레이리스트 109>, 오늘을 버티게 한 노래 109곡은 계속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 연상 버팀 노래 109곡 다양한 음악 플랫폼에서 서비스
- 7월 21일 첫 방 <플레이리스트 109>, 9월 8일 ‘자살예방의 날(9. 10.)’ 맞이하며 종영

자신의 힘들었던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배우 김영옥(89세)이다. 8.15 광복과 6.25를 거쳐 배우로 데뷔해 긴 세월 한 길을 걸어왔다. 최근 남편을 먼저 보냈다. 듣고 싶던 노래가 있다고 했다. 나미의 ‘슬픈 인연’이다. 손자 같던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줬다. “오늘 제대로 추모를 했다.”, “참... 노래라는 게 그래...” 연인과의 재회를 기다리던 노래는 먼저 보낸 인연을 기억하는 한 사람의 ‘버팀 노래’가 되었다. <오늘을 버티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109(이하 플레이리스트 109)’>의 이야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엠비시(MBC, 사장 안형준)와 공동 기획으로 제작한 <플레이리스트 109>는 지난 7월 21일 첫 방송 이후 매주 화요일 밤 9시 방송을 통해 국민들을 만났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 당신을 버티게 한 노래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 아래, 나이도 성별도, 성격도 다른 개개인의 삶 속에 조용히 존재해 온 ‘노래의 힘’을 한자리에 모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누고자 기획한 캠페인이다.

왜 <플레이리스트 109>였나? 위기의 번호에서 일상의 동반자로의 전환

이번 캠페인에서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를 힘든 시간을 버티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시키고자 했다. 다양한 ‘버팀 노래’와 사연으로 국민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달했다. 4회 차 방송에 출연한 109 상담원은 “용기 내어 잘 전화 주셨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총 8회 방송, 수천 명의 사연과 노래 109곡이 남긴 이야기

총 8회에 걸친 방송에서는 배우 박신양·차인표·박소담·차지연·김영옥, 요리사 윤남노·이연복, 가수 선우정아·테이·다영·송가인, 방송인 조나단, 계단 뽀서클럽 대표 박수빈, 전 야구선수 윤석민, 의사 이광민, 뇌과학자 장동선, 한강수난 구조대와 109 상담원 등 다양한 인물이 출연해 자신을 버티게 한 노래와 이야기를 나눴다. 투병, 방황과 상실, 오랜 무명 시절 등 저마다 다른 어려움을 지나온 출연자들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들에게 각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한마디를 전했다. 2회에 출연한 요리사 윤남노는 요리의 쓴맛이 전체 맛의 균형을 잡아주듯 삶의 어려움도 결국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방송 후 누리소통망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방송은 스타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다. 국민이 직접 자신의 사연과 노래를 공유했다. <키크니의 사연 공모>, <여러분의 버팀송을 알려주세요 이벤트>, <굿모닝 에프엠(FM)>등을 통해 3,300여 건의 참여가 이어졌다. 마지막을 장식한 청음회에서도 국민 60명을 초청해 참여를 이끌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개개인의 이야기와 노래가 모여 완성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느 캠페인과는 차별화를 뒀다.

이야기에서 노래로, 진행자들이 직접 만든 위로

진행자 이석훈, 이준, 딘딘은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시청자를 위로할 음악도 직접 만들었다. 가수 소란과 인순이도 자신의 노래가 필요한 사연자를 찾았다. 세 진행자의 첫 공식 음원 ‘같이’는 지난 8월 22일 엠비시 <쇼! 음악중심>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됐으며, 8월 28일에는 딘딘이 직접 작사·작곡한 두 번째 음원 ‘109’가 이번 캠페인의 마지막 퍼즐로 공개됐다. 음악 플랫폼의 한 청음자는 두 곡 모두 좋라며, “지쳤을 때 무언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노래! 이런 노래가 필요한 요즘”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 곡은 저작권자들의 동의로 마지막 방송 후 엠비시 <플레이리스트 109>의 공식 누리집에서 개인이 무료로 내려받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캠페인의 메시지가 방송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일상 속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한편, 9월 8일 밤 9시에는 방송인 조나단, 요리사 이연복의 이야기와 함께 국민 60여 명을 초청한 청음회를 만나볼 수 있는 최종회가 방송된다.

방송이 끝나도 계속되는 공감과 위로, ‘버텨 노래’ 109곡

국민들이 남긴 ‘버텨 노래’ 109곡은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다. <플레이리스트 109>의 공식 곡 목록은 방송 종영 이후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는 음원 플랫폼을 통해 계속 서비스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체부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은 “우선 <플레이리스트 109>의 이석훈, 이준, 딘딘 세 분의 진행자 그리고 사연과 노래를 나누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모두가 공감하고 위로받는 지속 가능한 캠페인으로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 남아있는 감동과 위로의 이야기를 보고 공감하면 좋겠다. 그리고 방송에서 진행된 ‘109 챌린지’처럼 10시 9분에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붙임 <플레이리스트 109>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책임자	과장	인숙진 (044-203-3011)
		담당자	사무관	김영관 (044-203-3033)



붙임

〈플레이리스트 109〉 포스터

